



## 인생의 빛깔

김성훈/생명의전화 상담부장

‘택시란 것이 참 묘해서 타려는 마음이나 기회가 아닌 때에는 빈택시가 흔하고, 한참 바쁘고 급한 길에는 그렇게도 타기 어려운 것이 택시이다. 그러니 불법이란 것은 알지만 합승 안해본 택시기사가 몇이나 될까. 또 합승으로 택시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백이면 아흔아홉쯤 되리라 생각된다. 택시의 합승이 불법이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셈이고, 합승 금지 조항이란 것도 특별한 날에는 정부가 술선하여 유보시킨다. 대학 입시날이나 버스 파업날 등에 그렇다. 이러한 식이니 택시 합승으로 인한 법적 가책이나 죄의식을 갖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어느날 유난히 급한 때문에 필자도 동분서주, 목청높여 간신히 합승으로 택시 앞자리를 얻어 탈 수 있게 되었다.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사와 뒷승님에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여하튼 정신없이 탄 때문에 얼마 지나서야 정상적으로 차분해지게 되었다. 그때서야 뭔가가 허전해서 살펴보니 안전띠를 하지 않은 채로 앉아 가고 있는 것이었다. 서둘러 안전띠를 매려하자 기사 아저씨 왈

‘요즘은 단속도 안하는데요 뭘, 괜찮습니다. 그냥 가셔도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랬다. 요사이 시내에서-고속도로나 외곽 도로에서의 경우는 잘 모르니까- 안전띠 안맸다고 단속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주위에 보면 안전띠 매지 않은 운전자도 많고, 안전띠를 하지 않고 앞자리에 앉은 사람도 상당히 된다. 단속이나 벌칙금때문에 안전띠를 한다는 식의 생각에서 보면 단속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기사분의 그런 말에도 허전하여 안전띠를 하였다. 전에는 으레 하지 않았던 안전띠인데, 단속이니 어쩌니 하니 귀찮지만 억지로 하기 시작한 안전띠, 그런데 이제는 하지 않으면 허전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다.

앞서 말한 것들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택시 합승 금지 조항이란 것은 이제 있으나 마나 된 셈이라 보여진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런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일까 물론 택시 합승을 허용하면 큰 혼란과 혼잡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유명무실해진 그런 제도는 지켜지지도 않고 - 집중 단속 기간에는 그런대로 지켜

지는 것 같음 -, 범법자만을 만들어낸다.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도 승객들에게도 더 좋은 제도나 법규가 필요하겠다. 아마 그런 것쯤 벌써 전문가들께서 연구하고 계시리라 믿는다. 안전띠 문제도 그렇다. 정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고의 후유증, 즉 인명보호를 위해서는 그것보다 좋은 방안이 없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니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래전 미국에서 살다 온 6살난 조카를 차에 태우고 가게 된 적이 있었다. 뒷자리에 올라 이리저리 안전띠를 찾아 법석을 떨어, 편찮다고 그냥 가도 된다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며 소리지르던 것이 생각난다. 이렇듯 어릴때부터 필요한 것은 반드시 습관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꼭 지켜야 할 것에는 아무리 귀찮아도,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다 보면 좋은 습관으로 개인 뿐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런 경우들을 흔하게 보게된다. 사회 제도에서도 개인의 생활에서도 그렇다. 작년 어느 때인가 모 일간지에서 이런 제도 필요한가란 연속 기획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공감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사회제도에서 뿐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생활에서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허례와 허식으로 가득찬 생활 태도는 반드시 고쳐나 가야 한다.

한 때 호화호수로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러더니 그 호화호수라는 것이 특정계층의 일부가 아닌 점차 보편화되어 가는 현상도 있었다. 결혼식의 사치와 낭

“  
 어른들이 꼭 지켜야 할  
 것에는 아무리 귀찮아도,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

그 때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며 한숨쉬는  
것으로 인생의 빛깔이  
구별되는 시절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

비도 일생에 한번뿐인데라며 점차 도를  
더해간다. 더불어 축의금이란 것도 성의  
와 축복의 뜻이 아닌 과시용, 체면치레용  
으로 변해 분수 이상하게된다. 어르신 회  
갑 잔치에 적어도 오백만원, 아니 천만원  
정도들여야 그럴듯하게 하는 세상이다.  
나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효  
도라는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속을 들  
여다보면 남들 이목때문에라는 웃지못  
할 내막도 있기 마련이다. 많아야 둘 뿐  
이라 그런지 자식들에 대한 애정도 지극  
(?)하여 유명 메이커 옷, 신발만 골라 입  
히고, 남들 다 보낸다하니 뒤질세라 미술  
학원, 피아노학원, 속셈학원, 태권도 도  
장 등 하루 일과가 어른보다 바쁘게 키우  
게 되는 모습도 흔하다.

옷 한벌에 몇백만원하는 것 T.V나 신  
문에서 보며 누가 저런 옷 사입나 하는  
데도 없어서 못판다나, 술값이 몇백만원  
된다는 술집도 문전성시(?)라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는지만 사실무근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허례허식과 과소비로 치달  
는 우리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며  
누구나 어찌될까하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그런 자신은 마치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 하듯 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  
다 보면 나에게도 그런 허례와 과소비의  
구석들이 의외로 많고 그것들은 가정경  
제의 위험 신호와 더불어 나의, 우리 가  
족의,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을 크게 해  
치게 된다.

사실 그 정신적 피해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최소한의 옳고 그름을 분별  
하는 가치 인식의 척도가 흐려져 우리의  
생활 자체의 구석구석을 마비시켜준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무엇이 선한  
행동으로 나와 이웃 모두가 공동의 행복  
을 추구하게 되는 것인지도 감각이 없어,  
그렇게 살다보면 내가 왜사는가, 삶이 무  
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게 되는 시절을 맞  
는다. 그 때라도 내인생을 되새겨 새롭게  
재출발할 수 있으려면 오�히려 인생무상  
하다고 그 허무함을 방종과 방탕으로 허  
비하여 더 깊은 수렁으로 가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 만이 아니고  
그의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큰 피  
해를 주면서...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야한다.  
우리에게는 항상 꼭 필요한 것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과 없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들을 만나, 선택해야만되는 때  
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들  
은 우리를 귀찮고 답답하게 한다. 그것들  
은 우리를 오랫동안 길들이지 않으면 정  
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한다. 나중에 보니 그게 정말 옳았어, 그  
렇게 하길 잘했지 하거나, 그 때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며 한숨쉬는 것으로 인생의 빛깔이 구  
별되는 시절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  
는 이미 알고 있다. †